

‘대북정책’ 대신 뒤흔들 변수될까

孫, 경선 불참 뜻 굳혔나

어제 봉은사 법회 참석 “더 어려운 길 택할 것”

한나라 “북핵 불능화 잘 이행 때 남북정상회담 무방”

우리당 한반도 평화무드 조성 민주세력 재결집 기대

한반도 평화무드가 대선을 앞두고 매머드급 변수로 부상하고 있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북한 핵 실험 사태 이후 대북 강경론을 고수해왔던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의 기수를 헛별 쪽으로 급진화하고 있으며, 범여권은 한반도 남북이 대선 구도를 다시 짜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정형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테스크포스를 구성, 대선 예비후보들과의 조율을 거쳐 1~2개월 내에 새로운 대북정책을 마련하는 등 대북 정책에 유연한 자세를 보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쌀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사업에도 전환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쌀을 비롯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얼마든지 해야하고 개성공단과 평양에 진출한 기업들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결사 반대로 일관해 왔던 남북정상회담

에 대해서도 융통성을 보이고 있으며 교류협력 차원에서 소속 의원들의 대북활동을 허용하고 적극 장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북한의 핵 불능화 조치가 확실치 이행된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방향 전환은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 무드에 강경 기조만 고수하기는 어렵다는 자체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햇볕정책에 우호적인 중도 성향표를 여권에 내쫓으므로써 또다시 대선 패배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위기 의식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한반도의 평화무드가 밀려오면서 대선 관도에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면 평화·통일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그동안 사

분오열했던 민주·평화세력이 재결집, 한나라당 우세의 대선구도가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범여권은 한반도 평화무드 조성 및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한나라당과의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와 함께 북한을 방문했던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14일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 정상회담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뤄지거나 두 회담이 동시에 진행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은 6자회담이 잘 운영돼 남북 정상이 협정에 서명할 만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자연스럽게 개최될 것”이라며 “북미 수교가 이뤄지고 한반도 평화가 국제적 구조 속에서 담보된다면 남북 정상이 평화협정 체결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당의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은 6·15 선언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고 후속 조치에도 동참을 거부해 온 냉전세력”이라며 “대통합을 반드시 성공시켜 수구냉전 세력이 한반도 문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상황을 절대 만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불참 가능성을 시사한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행보에 정치권의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열린 한나라당 경선준비위원회 회의에 불참했던 손 전 지사는 14일 봉은사 법회에 참석, “(옛말에) 결정이 어려우면 더 어려운 길을 택하려고 했다”며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선문답 같은 발언을 했다.

손 전 지사는 또한 “전길 남퍼러지에 떨어지는 데 풀 포기 하나 잡으려 안달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못 사람은 결과를 중시하지만 보살은 씨앗을 심는 것을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손 전 지사의 행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대중 전야의 고요’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놓고 있다. 조만간 중대 결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안달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내비치고 당장의 결과를 추구하기보다 미래의 씨앗을 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볼 때 경선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이미 굳힌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손 전 지사가 위원회, 고진화 의원과의 경선 불참 연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손 전 지사와 위원회·고진화 의원은 15일 중도개혁을 주창하는 ‘전진코리아’ 출범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손 전 지사가 탈당 카드를 꺼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세가 불리한 상황에서 경선 틀을 문제삼아 탈당 카드를 쓴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점에서 ‘자폭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손 전 지사가 당분간 외곽을 돌며 당 지도부를 압박,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4일 오전 서울 강남의 봉은사에서 열린 법회에 참석한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108배를 올리고 있다.

“목포-평택-개성 중심축 환경해권 개발해야”

김혁규 의원 주장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은 14일 “개성, 경기도 평택, 전남 목포를 중심축으로 하는 환경해권을 개발하면 물류와 교통은 물론 한류문화의 수출전진기지가 돼 일본, 중국, 인도로 이어지는 세계 교역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환경해권 개발 비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목포대 박물관 대강당에서 목포대학생과 교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시대, 목포는 한 항해 중심축이다’라는 특강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2050년이면 한국과 일본, 중국, 인도로 이어지는 이 경제블록이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60%, 교역량의 70%를 차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질 높은 인력을 합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남북경제공동체가 돼 연간 7%대의 성장과 3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고 남북이 상상하는 가운데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환(사진 오른쪽) 한나라당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여의도 연구소에서 열린 경준위 회의에서 박근혜 후보 측 대리인인 김재철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이해찬 “방북 결과 대통령께 말하겠다”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장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이해찬 전 총리는 14일 “대통령께도 이번 방북 결과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절차를 밟아 거시기 있었던 일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적십자사나 통일부, 외교부 등 각급 기관에다 참고할 만한 일을 말하겠다”며 “오늘 이미 (주

강재섭-문재인 ‘정상회담’ 설전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참여정부가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남북정상회담 논란 등을 놓고 설전을 펼쳤다.

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 실장의 예방을 받고 “임기말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 성급히 정상회

담을 추진해 국익이 도태됨으로 넘어가 버리면 안된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어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 박지연 전 장관이 국민도 모르게 북한에 가서 선거 직전에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밝히는 등 정략적으로 했다”며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면 국회에서 땀땀이 밝히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하면 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 실장은 “정상회담 논의가 있다고 들어보지 못했다, 이해한 전 총리의 방북은 공식적으로 밝힌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며 “지금이라도 특사를 보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당당히 하겠다”고 말했다.

“6·15정신 부정하는 한나라는 반통일 세력”

광주 은 김원웅 의원 주장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은 14일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의 중단 등을 주장해 온 한나라당과 박근혜 전 대표 및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세력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날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민족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6·15 정신을 부정해 온 한나라당은 반통일, 반민족 세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5·16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미화하고, 전두환을 기념하는 공원을 만드는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이 같은 낡은 패러다임으로는 21세기 지식창조시대를 이끌지 못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그는 또 “국민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선진평화강국의 꿈을 실현하겠다”며 “지금까지 지역주의에 의지하지 않고 내거 국민통합의 책임자”라고 말했다.

결산공고

24시간 FAX 및 E-mail로 접수합니다.

光州日報 광고국

☎ 전화 : (직)062-227-9600
☎ FAX : 062-227-9500
☎ E-mail : dd8111@hanmail.net

정정 공고

본지 2007년 3월 14일자 4면에 게재된 (주)고등건설 건설업 양도 양수 공고 중 4.양도인 대표이사 장영해를 대표이사 겸임자로 정정 공고합니다.

제 권 판 결

사 건 2006가공 178
신청인 박은배
피고자 상동 1018(4/4) 상동아파트 108-702

아래판결 기지 중서에 대하여 2006. 12. 4. 공시회고결 하였으며, 그 공시회고결에 관한 2007. 3. 8. 10:00까지 권리의 신고나 청구 및 중재를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주판과 같이 판결한다.

● 종 판 : 2006가공 178
● 원 판 : 2006가공 178
● 항 판 : 2006가공 178
● 상 판 : 2006가공 178

판 결 기 기 : 2007년 3월 15일
판 결 장 : 2007년 3월 15일
판 결 장 : 2007년 3월 15일
판 결 장 : 2007년 3월 15일

산행안내

3월 16일(금) ▲광주산악회 심혈관건강운동, 백암운천, 주왕산 3월 16일(금)~17일(토) 1박2일(8시) 백운보리(예)세화관주부경주출발 07:00~10:00 T.011-606-3477

3월 17일(토) ▲광주도요산악회 보은 구룡산 17일(토) 07시 30분 광주역(문)대외관광유출발 07:30~10:00 T.011-608-4267, 011-634-2044

3월 18일(일) ▲광주산악회모임 경남 봉영 사평도 지리산 3월 18일(일) 08시 무등경기장주부경주출발 07:30~10:00 T.011-608-4267, 011-634-2044

3월 19일(일) ▲무등산악회 경남 거제도 방문 3월 18일(일) 08시 롯데백화점(문)대외관광유출발 07:30~10:00 T.011-602-6278

3월 19일(일) ▲요산회 경성, 금천, 기암산 3월 19일(일) 07시 30분 광주역 출발 T.011-601-1509

3월 20일(화) ▲호남산악회 여수 금오산 협암의 오동도 등반 3월 18일(일) 08시 광주역(문)대외관광유출발 07:30~10:00 T.011-606-5634

3월 20일(화) ▲남평산악회 여수 금오도 대부산 2007년 심혈관(동북)출발: 3월 18일(일) 07시 30분 대외관광 선명화리(문)출발 T.011-606-6688-2468

3월 20일(화) ▲빛고을의오름회 거창 대개산 3월 18일(일) 07시 30분 임주리(문)출발 T.011-609-7159, 010-6691-9774

3월 20일(화) ▲전남산악회 기제 도너봉-국시봉 3월 18일(일) 07시 광주역 출발 T.010-9776-3030, 011-642-5197

3월 20일(화) ▲광주유보회 경기 광주 여주양자산-영서관-문인양자산 3월 18일(일) 07시 광주역 출발 T.011-9600-4532

3월 20일(화) ▲광주한림산악회 진도 협도 남평산 3월 18일(일) 07시 광주역 출발 T.222-

3월 20일(화) ▲거제시 산악회 회원 3월 18일(일) 08시 연대백화점(문)대외관광유출발 T.011-624-2181, 223-3951

3월 20일(화) ▲광주원산악회 흥남 흥영 흥복산 3월 18일(일) 07시 영주체육관(문)대외관광유출발 07:30~10:00 T.011-610-7675

3월 20일(화) ▲나사도산악회 흥남항비 3월 18일(일) 08시 30분 영주체육관(문)대외관광유출발 07:30~10:00 T.011-621-7201

3월 20일(화) ▲한울산악회 지리산(문)출발 3월 18일(일) 07시 국제호텔(문)대외관광유출발 07:30~10:00 T.011-608-4267, 011-634-2044

3월 20일(화) ▲보리마산악회 수양와 삼봉 3월 18일(일) 08시 광주역(문)대외관광유출발 07:30~10:00 T.011-643-7796

3월 19일(일) ▲영문산악회 경남 완양군 이화산 3월 19일(일) 총정공회(문)출발 08시 광주역 출발 T.018-647-2935, 017-609-9943

3월 20일(화) ▲영주산악회 평안 사평도지리산 3월 20일(화) 08시 영주체육관(문)대외관광유출발 07:30~10:00 T.011-608-2208

3월 20일(화) ▲광주산악회 경복 구미시 금오산(문)출발 3월 20일(화) 07시 40분 중앙동(문)대외관광유출발 07:30~10:00 T.011-606-3177

3월 20일(화) ▲월남산악회 경남 산동 영산 칠봉산 3월 20일(화) 08시 영주체육관(문)대외관광유출발 T.010-9000-6920, 011-603-0069

3월 21일(수) ▲정목산악회 전북 익산군 평도봉 3월 21일(수) 08시 광주역(문)대외관광유출발 T.011-616-5917

3월 22일(목) ▲광복산악회 리동 시부봉 내원관 경계

CANADA, SOUTH BAY COLLEGE OF TOM

한의대 입학생 모집!

영어에 능통한 세계적인 한의사가 되어, 넓고 탁 트인 캐나다, 미국에서 활약하십시오!

고③수험생, 대학생 직장인 입학대환영

(1) 한의예과 : 고교 졸업(예정)생 - 2년 과정(조기졸업1년 6개월)
* 한국 자매대학에서 수업 가능

(2) 한의학 본과 : 대학 2학년이상 학력소지 대학생 및 직장인 - 5년과정(조기졸업 : 3년 9개월)
* 한국에서 2개 학기 수업 후, 캐나다 본교에서 수업 가능.

광주 입학설명회문의
062-222-6253
동아외국어학원(신관)

당신도 한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www.southbay.co.kr ☎ 0505-313-1515